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674

#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을 통해 본,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

## Sexual Identity on the Personality of Marxism

**김영숙**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Yeoung-Sook Kim(smilekys0806@naver.com)

**요약**

마르크스 철학에 있어서 인격 개념은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차이 문제에 적용시켜보면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격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가부장제 사회에 있어서 남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무시한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활동성(특히 노동)의 차이, 즉 남성의 사회적 노동과 여성의 사적 노동은 남성과 여성의 인격에 결정적 차이를 야기시켰다.

■ 중심어 : | 인격 | 활동성 | 이데올로기 | 사회적 노동 | 사적 노동 |

**Abstract**

The personality in Marx's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an 'activity on the basis of social relations'. This concept suggests two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difference of sexual identity between the sexes. First, according to Marx's philosophy the personality is partially influenced by the ideology. Freud's theory of Oedipus is founded on the patriarchal culture including the ideology. Freud's concept of personality ignores that aspect. That's why Freud's theory of Oedipus complex can be criticized. This is because of his ignorance of the affecting power of male chauvinism in patriarchal society. Second, more importantly and definitely, the difference of activity, especially labor, that is, male's social labor and female's private labor, has influenced the difference of the personality of both sexes.

■ keyword : | Personality | Activity | Ideology | Social Labor | Private Labor |

## Ⅰ. 서론

가부장제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이다. 비록 가부장제가 지난 세기 말부터 급격히 흔들리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새로운 대안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장제는 내용과 형식은 조금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완고한 형태의 가부장제인 호주제가 2008년에 비로소 완전히 폐지되었으니 불과 십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라는 형식적 법제도가 바뀌었지만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가부장제적 사회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뿌리 깊은 의식 때문에 가부장제의 잔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목격될 수 있다.

이처럼 강건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예외는 있다손 치더라도 서로 다른 일정한 성정체성을 보

접수일자 : 2014년 09월 01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24일
교신저자 : 김영숙, e-mail : smilekys0806@naver.com

여 준다. 예컨대 보통 사람들의 성별 고정 관념에 대한 성역할 검사에 따르면 남성은 독립적, 객관적, 경쟁적, 모험적, 자기 확신과 야망을 갖고 있는 반면, 여성은 의존적, 주관적, 비경쟁적이며, 모험이나 자기 확신과 야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심리학자인 길리건은 남성은 냉철, 인내, 자립, 합리성 등을, 여성들은 이해와 포용, 배려와 책임감이라는 서로 다른 성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남성들은 추상적 지식이나 사회적 성공과 권력과 같이 현실적인 가치들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반면, 여성들은 예술과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들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실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여성이 주로 두뇌의 왼쪽을 사용하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남성은 추리 능력과 공간 감각, 기계 조작 능력에서 더 우월한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차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차이를 통해 일정한 설명을 제공했다. 예컨대 프로이드는 페니스의 유무와 초자아의 형성 유무를 통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서로 다른 심리 형성 과정을 설명했고, 낸시 초도로우는 최초에 유아가 심리적 애정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엄마나 할머니와 같이 여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자아 형성의 차이를 해명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인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마르크스의 이론은 실패한 혁명이론이자, 독단적 역사철학이론이다. 그러나 필자는 마르크스의 사회철학에 대한 평가를 떠나,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활용할 가치가 상당하며, 특히 성정체성 문제를 접근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들의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이 보다 근본적이고, 그들 이론을 보완해 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심리학적 접근방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성정체성을 바라보는 확실한 철학적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성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 II. 마르크스 철학에 있어서 인격 개념

서양 철학사 전반에 걸쳐 개인(person)은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개별자를 의미하는데, 이때 이성의 의미가 윤리적 색채를 띄게 되면서 personality(개성, 또는 인격)는 인격과 같은, 주로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person은 라틴어인 <persona>가 일정한 사회 내에서의 신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전통 위에서 넓게는 사회적으로, 좁게는 법률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또는 법률적 주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때 personality는 승인된 개별성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personality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에 성립된 심리학 일반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이때 personality은 구체적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유형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1].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인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의 철학 전반에 걸쳐 독특한 인간이해 방식을 드러낸다. 제일 먼저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로 파악한다[2]. 마르크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사회를 계급사회로 파악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사회 안에서 개개인은 무엇보다 계급적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다음으로 인간의 사회에 의한 피규정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일정한 사회적 제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현실적 삶을 반영해 냄으로써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인간 개개인은 유년기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킨다.

또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통해 자기 탄생에 대한, 자기의 성립과정에 대한 명백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명을 갖는다[3].' 이때 인간 스스로가 '자기 탄생'과 '자기의 성립과정'에 대한 원인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자가 바로 인간 자신의 활동이다. 다시 말해 인류는 끊임없이 활동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인간 자신을 형성시켜 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개인 그 자신은 그가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바 그대로이며,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란

그 개인이 활동하는 바를 의미하고, 그 개인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동활동이다. 그리고 이때 마르크스가 개인 그 자신의 본질이 그의 생산 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개개인이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와 특성이 그 개인의 사고나 제 기능 및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의 생존수단을 생산하는 방식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들의 육체적인 존재를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만 고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개인들이 활동하는 특정한 양식이며, 결국 각자의 특정한 삶의 방식이다. 개인들이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 그 자신이다. 개인의 본질은 그들의 생산활동, 즉 그들이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4]."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개인의 본질, 즉 인격을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 철학에 있어서 활동성 개념은 노동 개념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포함하는,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상호연결 및 통일적 작용을 설명해 주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 즉 최초의 인류는 자연적인 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는데, 개개의 인간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과거 인류의 활동의 결과물 (예컨대 생산력과 생산관계, 언어나 도구 및 규범들)을 자기의 것으로 습득, 내지 전유(專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물론 이때 사회적 존재로서의 다양한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자연적 제 욕구에 뿌리를 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이란 인간의 자연적인 잠재적 제 능력이 개발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다양한 욕구나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은 과거 인류가 행한 노동 또는 활동을 배제하고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간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 생산에 가담함으로써만,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사회적 제 관계를 매개로 해서 얻어냄으로써만 비로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연적인 잠재적 제 소질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능으로 발휘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기능을 행사하는 활동과정을 통해 자기의 독특한 인격을 형성시켜 나간다.

결국 마르크스 철학에 있어서 인간을 실질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은 욕구나 의식(또는 자기 의지)이라기보다는 활동성이다. 즉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에 있어서 욕구나 의식, 또는 자유의지나 자기의식은 모두 다 인간의 활동성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어지며, 활동성의 한 계기로서 규정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활동성을 중심으로 한 인격에 대한 접근방식은 인격을 독립적인 정신적 실체로 간주하는 관념론적 접근방식이나 본능적 욕구를 중심으로 인격을 설명하는 본능론적 접근방식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인간의 활동이 언제나 일정한 사회 속에서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활동은 그 자체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활동성을 근본적으로 '대상화작용'(Gegenständlichung)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상화작용'이란 자기 자신을 대상 세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기실현과정, 즉 대상화작용으로서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한 인간의 일정한 내적 의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때 일정한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활동은 합목적적 행위이며, 무엇보다 의식적인 행위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활동을 하지만,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을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5]. 마르크스는 '의식적인 것'을 [강요]에서 '개인의 창조적 잠재성'[6]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 개개인은 사회적 제 관계의 기반 위에서 자기의 창조적 잠재성으로부터 나오는 의식적인 활동의 무수한 과정을 거쳐 독특한 그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활동성, 혹은 노동 개념을 자기실현과정으로 파악할 때 마르크스는 이것을

나이브한 개념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노동은 개인의 자기실현으로 되는 바, 이는 결코 푸리에가 마치 여자 점원처럼 순진하게 상정하듯이, 단순한 즐거움이나 단순한 오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작곡활동과 같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작업도 동시에 가장 넌더리나는 진지함과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격렬한 노력과 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7]."

## Ⅲ.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을 통해 본, 여성의 성정체성

이제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인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성' 개념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연결시켜 논의해 보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인 가부장제 아래에서 인간의 personality는 제일 먼저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에 의해 규정된다. 한 집안 내부의 권력이 가장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부장제가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가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은 가부장제적 문화에 의해 뿌리 깊게 물들어져 왔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제 관계에 의한 피규정성은 계급적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좁은 의미 이전에 권력자, 내지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종속자, 내지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이라는 더 기초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관계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정신적 요소에 의해 보완되거나 강화된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활동성, 내지 노동이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고도의 과학문명과 기술생산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전 시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노동의 차이를 낳았다. 다시 말해 남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 영역 속에서 사회적 노동을 주로 담당해 왔다면, 여성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사적 노동, 즉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왔다.

이전 시대에 남성이 주로 담당해 온 사회적 노동은 여성이 담당해 온 사적 노동과는 질적으로 아주 상이한 것이다. 사회적 노동은 좁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 전반, 또는 일정한 조직 등 광범위한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기능이나 능력, 그리고 사회적 노동이 발전시켜낸 인간의 기능이나 능력은 사적 노동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적 노동이 발전시켜낸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회적 노동이 담당하는 대상세계는 그것이 댐 건설과 같은 자연개발이나 정치조직 형성이나 공장 운영 등 그 어떤 것이든 좁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은 그 자체 나의 주관적인 욕구나 감정을 벗어나 냉철하고 합리적이며, 고도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유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킨다. 이와는 달리 가사와 육아라는 사적 노동은 가족이라는 좁은 영역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이다. 사적 노동이 요구하는 기능은 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위해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적 노동은 고도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유이나,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지식이나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 제정을 위한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 혹은 권력이나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합리적 사유는 소수의 구체적 개인들을 위한 가사 운영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와는 달리 가사나 육아처럼 사적인 노동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해와 포용이다.

페미니스트 이론의 역사에서 기념비적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다른 목소리로*에서 길리건은 소녀들과 여성들이 도덕적 문제에 소년들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논증해 냄으로써 도덕감의 최고 단계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르는 정의감으로 본 콜버그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길리건은 전통적으로 철학사 속에서 관심과 배려, 이해와 포용 등과 같은 여성적 덕목들이 간과되고, 정의나 평등과 같은 남성적 덕목들만이 다루어지고, '정의의 관점'에 윤리적 특권이 부여되어 왔던 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8].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서구의 윤리학자들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성 능력에 기반 한 '정의의 관점'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정의의 관점'은 애초부터 남성보다 열등한 이성 능력과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여성을 배제시킨 공공 영역에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의의 관점'이란 여성을 제외한 남성들 사이의 합리적 계약을 맺어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윤리를 반영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로렌스 블륨(Lawrence Blum)은 정의의 윤리학을 남성들의 법적, 행정적 관점, 특히 전문적, 행정적 계급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다[9].

남성들이 정의의 문제에 여성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정의의 감각과 윤리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배려의 문제에 더 주목하고, 더 높은, 이해와 배려의 감각과 윤리를 갖고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담당하는 노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들이 담당하는 사적 노동은 구체적 이해와 배려의 감각과 윤리를 필요로 하고 강화시키며, 남성들이 담당하는 공적 노동은 추상적 사유와 보편적 정의의 감각과 윤리를 필요로 하고 강화시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성이 독립적이고 경쟁적이며, 모험과 자기 확신과 야망을 갖고 있고, 여성이 의존적이며 비경쟁적이며, 모험과 자기 확신과 야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남성과 여성이 담당해 왔던 노동의 차이에서 설명 가능하다. 여성이 행해왔던 사적 노동은 소수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에 민감한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의 특성상 타인에 의존적인 것이고 경쟁할 대상도 경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특별히 모험적인 것도 아니고 타자의 욕구를 들어줘야 하는 수동적인 것으로서 자기 확신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 더 올라가야 할 곳도, 더 내려올 곳도 없는, 애초에 야망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공간 감각과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여성이 언어 감각과 예술, 종교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도 남성과 여성의 노동의 차이에서 설명 가능하다. 남성은 사회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더 발달된 공간 감각을 갖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따른 재화와 같은 현실적 성과물을 획득해야 하므로 현실적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여성의 사적 노동은 다른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욕망을 알아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노동이다. 따라서 여성은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욕망을 둘러싼 인간의 감정 문제에 민감하다. 여성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기의 몫을 확보해 내는 현실적 이해와 감각을 기른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 Ⅳ. 성정체성을 둘러싼 심리학 이론들에 대하여

성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 이론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이론'과 낸시 초도로우의 이론일 것이다. 두 이론 다 여자 어린아이와 남자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기의 성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엄마와 아빠의 성을 자기의 성과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동일시 이론이라 불린다.

프로이드는 여자 아이, 혹은 남자 아이가 자기의 성이 다른 성을 가진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는 지점을 페니스의 유무에서 찾는다. 즉 프로이드에 따르면 남자 아이의 경우 자기보다 거대한 힘을 가진 아버지가 페니스를 거세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정(본능의 영역)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상징하는 초자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본다[10]. 다시 말해 남자 아이는 리비도를 포기하고 독립적이고 엄격하며, 보편적 정의감과 삶의 위대한 필연성과 같은 문화의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이드가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지점은 페니스의 유무에 있다. 남자 아이가 법, 정치, 학문, 예술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의미하는 초자아를 자기 내면 속에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페니스가 거세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다. 그런데 페니스에 대한 거세 공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페니스를 숭

배하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배제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에 페니스가 우월하고 좋은 것이라는 무의식적 전제를 배제한다면 페니스에 대한 거세 공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프로이드는 페니스의 유무가 바로 남자 아이에게는 자긍심을, 여자 아이에게는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 철학에 따라 개인의 인격이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때 인간의 사회적 제 관계에 의한 피규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피규정성이다. 프로이드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페니스를 숭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우월주의 문화 내지 이데올로기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일반화 내지 강화되고, 남성의 사적 노동에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전의 가부장제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형성된다면 남성 우월주의 문화나 이데올로기는 점차 약화될 것이고, 따라서 초자아를 중심으로 한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심리학 이론도 정당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이드의 초자아를 중심으로 한 성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이드의 이론은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만 설득력을 갖는 이론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 이미 현대 사회는 오랜 세월 지배력을 누려왔던 가부장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팔루스의 존재가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의 차별적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론의 무의식적 바탕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없다. 바로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이리가레이는 정신분석학이 그 자신의 담론의 역사적-철학적 결정 요인을 간과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분석할 수 없었던 무의식적 환상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비판한다[11].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리가레이는 라캉 학파가 그것의 역사적 문화적 결정요인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혹은 무의식이 하나의 전통 내에서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와 같은 것으로 들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말해지고,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보기를 거부한다고 비판한다[12]. 결국 사회-문화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맥락 중심적 접근법[13]에 의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그 시대적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가부장제 사회는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가사와 육아 및 가사 전담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낸시 초도로우는 여자와 남자의 서로 다른 성정체성이 시대마다 되풀이 되는 이유를 바로 유아를 기르는 존재가 엄마나 할머니와 같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설명한다[14]. 이때 낸시 초도로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성정체성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엔 자립성을, 여성의 경우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의미한다. 낸시 초도로우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아를 기르는 존재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따라서 대부분 어린아이는 처음에 자기를 보살펴주는 여성에게 감정적 애착을 경험한다. 그런데 남자 아이의 경우 자라나면서 자기의 성이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존재인 여성의 성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삶의 모델이 자기의 애정 대상인 여성이 아님을 자각함으로써 최초의 애정의 연결의 끊고, 독립적 자아를 내면에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남아는 어머니와의 1차적 동일시 과정이 지나면 남성적 동일시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버지를 가까이 접촉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행동과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보다는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추상적 수준으로 체험한다. 따라서 이때 남아는 자아와 분리적인 상태를 남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여성다움을 억제하고 평가절하하게 된다.

이에 반해 여자 아이의 경우, 자기의 성에 대한 자각이 시작될 때 자기의 애정의 대상이 자기의 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애정의 대상에 대한 심적 연결을 끊을 필요 없이 그대로 자기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고, 그 결과 여자 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착을 그대로 간직한 자아가 내면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낸시 초도로우에 따르면 남아의 정체성인 남성다움은 독립을 통해 규정되고, 여성다움은 애착관계를 통해 규정된다. 실제로 수많은 경험적 관찰에 따르면 남자 아이는 친밀성에서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독립성이

유지될 때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는 반면, 여자 아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유대 속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원시 부족 사회에서 남자 아이에게 행해졌던 '성년식'이라는 관습적 전통을 고찰해 보자. 뉴기니아의 삼비아족, 호피 인디안 사회에서 행해져온 남성 입문의식은 남아가 '어머니의 젖을 떼고' 진정한 남자로서 거듭 나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남아는 어머니에 의해 키워지면서 여성성으로 오염되었다고 생각되어 남아 속에 있는 편안하고 따뜻했던 여성성을 떨쳐버려야 되고, 이때 여성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내면화시키게 된다. 그 다음 남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외진 장소에서 몇 주간 방치되어 내부에 있는 여성성을 죽이는 과정을 경험한다. 예컨대 '할례의식'은 남아의 페니스의 귀두를 싸고 있는 표피(여성의 질에 해당)를 잘라냄으로써 남성으로부터 여성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순수한 남성성만을 간직하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남성이 되기 위한, 매질과 같은 모진 시련의 과정을 참고 이겨냄으로써 갖게 된 상처는 자랑거리로 남는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남자에게 혹독한 육체적 시련을 경험케 하는 건 남자 아이가 엄마에 대한 유아기적 의존심을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다른 부족이나 짐승을 때려 눕혀야 하는 성인 남성의 노동을 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남자 아이가 엄마의 삶이 자기 삶의 모델이 아님을 깨닫고 독자적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자기 삶의 모델로 삼고 아버지의 자아를 내면화시킨 결과이다. 성인 남성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노동은 감정적 유대 속에서 일하는 사적 노동의 영역과는 다르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여성들이 갖게 되는 관계 지향적 자아와는 다른, 독자적이고 냉정한 자아를 갖게 된다. 결국 여자 아이는 자기가 앞으로 행할 사적 노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자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엄마의 성정체성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지만, 남자 아이의 경우엔 그들이 마주치게 될 사회적 노동에 필요한 자질을 아버지에게서 발견하고, 그러한 자질을 자기 속에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낸시 초도로우의 심리학 이론 역시 여성과 남성의 노동의 차이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노는 놀이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들 모두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래의 노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지 알 수 있다. 여자 아이는 소꿉놀이와 같이 '특정한 타자'와 연관되는, 게임의 규칙의 수가 적고 예외를 허용하는 놀이를 한다면, 남자아이는 축구처럼 '일반화된 타자'와 관련된, 게임의 규칙이 더 세분화되고, 규칙 준수가 매우 엄격한 놀이를 하는데, 이는 모두 여성의 사적 노동과 남성의 사회적 노동을 보여 주는 일종의 축소판이다. 이처럼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최초의 애정의 대상인 엄마와 심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남자 아이가 심리적 유대를 끊는 경험의 과정은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행할 미래의 자기 삶에 대한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심리학 이론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성이 다른 성과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성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피규정성을 규명하는 맥락 중심적 접근법에 의해 비판받고 보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마르크스 철학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그 옛날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특히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적 입장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인간에 대한 견해는 아직도 우리가 음미해야 할 바가 많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록 마르크스가 자기의 저서에서 인격의 개념을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인간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으로 추론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 철학의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이라는 인격 개념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피규정성과 활동성, 특히 서로 다른 노동에서 연유하는 성정체성의 차이이다. 프로이드가 남아와 여아의 서로 다른 성정체성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페니스를 선망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문화, 내지 남성 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는 애초부터 설명 불가능하다. 또한 자립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남아와 애착 관계를 지향하는 정체성을 갖는 여아의 차이가 낸시 초도로우가 주장하듯이 어렸을 적, 최초의 애정의 대상인 여성과의 단절, 내지 지속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여아가 자기 삶의 모델로 삼는 엄마의 관계지향적 정체성과 남아가 자기 삶의 모델로 삼는 아버지의 독립적 정체성은 무엇보다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차이, 즉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특성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 철학의 인격 개념인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 을 가정 내 권력 관계에 적용해 보면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밝혀진다. 가부장제 아래에서는 가장이 집안의 모든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외는 있다 할지라도 여성이 독립적 자아와 확고한 자아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이란 개념이 갖는 장점은 바로 인격의 형성 과정을 동적인 것을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여성 정체성 역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15]. 결국 모든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조를 단 하나의 원인 (프로이드의 경우는 거세 공포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낸시 초도로우의 경우는 전(前)오이디푸스 관계)에 의해 빚어진 고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예컨대 정신 분석학적 페미니즘은 오이디푸스 단계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롭기는 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정체성의 문제를 사회의 기원과 분리시켜 이론화하고, 사회 및 역사의 기원보다는 심리-성 발달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16].

심리학 이론은 주어진 사회 체제와 문화 안에서 남아와 여아의 인격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그 이전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남성 우월주의와 남근 숭배주의가 문화적 전통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사회에서 설명력을 인정받았던 심리학 이론은 이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마르크스 철학의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이라는 인격 개념은 맥락 중심적 접근법을 통해 인격의 사회(이데올로리)에 의한 인격의 피규정적 측면과 인격의 능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존 심리학 이론의 한계를 통찰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앞으로의 사회는 남성에게 사회적 활동(노동)만을, 여성에게 사적 활동(노동)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회적 활동과 사적 활동 모두를 허용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적 활동이 지배하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보편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성이 요구되고, 사적 활동이 지배하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배려가 요구된다[17]. 따라서 이제 미래사회는 남성에게는 (지배하는) 이성을, 여성에게는 (복종적인) 배려를 각각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배려하는 이성'이라는 보다 통합적인 인격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H. J. Hrsg, *Europäische Enziklopädie zu Philosophie und Wissenschftern*, Band 3, Felix Meiner Verlag, s.650-658, 1974.

[2] K. Marx, *Thesen Über Feuerbach*, MEW, 3,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s.6, 1979.

[3]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cripte, MEW, EB 1,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s.542, 1979.
[4] K. Marx,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s.21, 1979.
[5] 같은 책, s.517.
[6] K. Marx, *Grundrisse*, MEW, 42,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s.396, 1979.
[7] 같은 책, s.512.
[8] 캐롤 길리건,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 철학과 현실사, pp.20-41, 1994.
[9] Blum and Lawrence, "Kant's and Hegel's Moral Rationalism : A Feminist Perspective," in Canadian in Journal of Philosophy, Vol.13, No.2, pp.287-302, 1982.
[10]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성애론*(정성호 편역), 문학세계사, p.246, 1997.
[11] Margaret Whitford, "Introdution," *The Irigaray Reader*, Blackwell, p.6, 1991.
[12] 뤼스 이리가레이,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 (권현정 엮음), 도서출판 공감, p.293, 1997.
[13] 유진희, "김수현 홈드라마의 장르문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엄마가 뿔났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104, 2010.
[14] Nancy Chodorow,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p.47, 1978.
[15] 조현순, "여성성과 젠더 정체성", *새 여성학 강의*, (사)한국여성연구소 지음, 동녘, p.34, 1999.
[16] 이연정,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p.100, 1999.
[17] 김영숙, "'지배하는 이성'과 '배려하는 이성'이라는 개념 쌍을 통해 본 영화<피아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141, 2011.

## 저 자 소 개

**김 영 숙(Yeoung-Sook Kim)** 정회원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 현재 : (사) 전북 독립영화협회 회원
- 1993년 :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취득
-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강사 역임

<관심분야> : 페미니즘, 대중문화이론, 영화비평